

관세 리스크, 경기 우려, 공매도 재개

장 마감 코멘트

- KOSPI 2,481pt (-3.00%), KOSDAQ 672pt (-3.01%)
-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트럼프 관세 현실화, 공매도 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KOSPI 2,500pt 하회 및 외국인 현, 선물 각 1조원 이상 순매도
- 전 업종 하락했으며, 양 시장 하락 종목 수 90% 내외
-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2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예상을 상회해 '경기 침체 + 물가 상승' 우려가 확대
- 또한, 지난주 발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될 관세에 대해 거의 모든 국가에 최대 2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관세 불확실성 재부각
- 한편, 국내는 17개월 만에 공매도 거래 재개. 전 종목이 재개된 것은 약 5년 만으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잔고 금액이 급증했던 2차전지주들의 낙폭이 컸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4% 내외 하락 마감
- 금일 일본, 대만 증시도 약 4% 하락해 금일 국내 증시 급락은 공매도보다는 미국 경기와 관세 리스크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중국 증시는 제조업/비제조업 PMI 개선에 지수 하락 제한적
- 지난달 말에도 관세 발표 앞두고 국내 증시 급락한 바 있으며, 공매도 재개와 맞물려 단기 변동성 확대 불가피하나 향후 실적전망에 따른 주가 차별화 나타날 것으로 기대

투자지표

코스피	2,481pt	-3.00%
코스닥	672pt	-3.01%
매매동향 (억원)	코스피	코스닥
개인	+7,951	+599
외국인	-15,795	-2,162
기관	+6,614	+1,474
코스피 P/E, P/B (배)	8.65 / 0.86	
고객예탁금 / 신용잔고 (조원)	54.69 / 17.84	

주: 15시 30분 KRX 기준
 단, 고객예탁금, 신용잔고는 2거래일 전 기준
 P/E (12M Fwd 기준), P/B (TTM 기준)의 경우 전일 기준값에 지수 변동분만 반영된 미확정 데이터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억원)

KOSPI 순매수		대금	KOSPI 순매도		대금
1	두산에너지빌리티	134	SK 하이닉스	-3,379	
2	에이피알	47	삼성전자	-2,088	
3	산일전기	40	현대차	-858	
4	더존비즈온	40	한미반도체	-536	
5	LS ELECTRIC	36	LG에너지솔루션	-492	
KOSDAQ 순매수		대금	KOSDAQ 순매도		대금
1	코오롱티슈진	79	에코프로	-485	
2	리가캠바이오	74	알테오젠	-443	
3	필옵틱스	59	HLB	-97	
4	에스엠	36	에코프로비엠	-66	
5	솔리드	26	파마리서치	-60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억원)

KOSPI 순매수		대금	KOSPI 순매도		대금
1	SK 하이닉스	1,668	셀트리온	-149	
2	KB 금융	327	기아	-81	
3	HD현대일렉트릭	304	한미반도체	-63	
4	삼성전자	281	대한항공	-63	
5	LG에너지솔루션	262	삼성전기	-58	
KOSDAQ 순매수		대금	KOSDAQ 순매도		대금
1	알테오젠	560	코오롱티슈진	-101	
2	파마리서치	94	디앤디파마텍	-54	
3	삼천당제약	85	올릭스	-53	
4	에코프로	78	ISC	-34	
5	에코프로비엠	73	온코닉테라퓨틱스	-27	

자료: Check, KB증권 / 주: KRX 기준, ETF 제외

증시 캘린더

(미: 미국, (유: 유럽, (중: 중국, (한: 한국. 한국시간 기준 (자료: Bloomberg, 인포맥스)

31 (월)	1 (화)	2 (수)	3 (목)	4 (금)
(중) 3월 국가통계국 PMI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미) 2월 JOLTS, 3월 ISM 제조업 PMI (중)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한) 3월 수출입 동향	(미) 2월 내구재 주문, 3월 ADP 민간고용	(미) 3월 ISM 서비스업 PMI, 3월 S&P 글로벌 서비스/종합 PMI (중) 3월 차이신 비제조업/종합 PMI	(휴장) 중국, 홍콩 (미) 3월 비농업부문 고용, 실업률 (실적) 삼성전자 (잠정)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증권은 등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투자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책임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